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49호 현대불교
2007년 10월 17일(음력 9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女):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좀 얘기할까 싶어서요. 얼마 전에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다 보니까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휴, 개미야. 제발 부디 네가 살 데서 살아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거기서 나가줘!'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심(無心)에서 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날 저녁에 집엘 들어가 보았더니 부엌 싱크대 위 같은 데 개미가 참 많았는데 개미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왜 개미가 한 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상해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나 빵 부스러기나 하는 거를 일부러 놓아보았어요. 부엌 예다가. 그랬는데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개미가 안 오는 거예요. 부엌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거기도 개미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 이 마음과 풀 한 포기나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돼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가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게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건가 아니면 개미가 여기가 살기 싫어서 갔는가...

▲스님: 좀, 좀 믿어 봐요. 하하. (대중 웃음)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거 하나를 체험했을 때는 그 줄을 잡고선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 돼요.

▲질문자3(女): 네.

▲스님: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 또 지렁이 하나, 그리고 이 땅에 밭을 딛고 있는 전부가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중단을 다 치워버



그림 · 최주현

렸어요.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놓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몸을 막 때려서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치우면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로 다 놓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 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서 치우니까 그 쪽에서는 내 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급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 도리(無心道理)에서 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응집을 해가지고 같이 이끌어주는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普賢)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女):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마음이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함부로 뜯지도 못하겠고요. 어느 별레 한 마리나 사람 누

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스님: 그러기에 옛날 선지식들은요, 직신을 신고 방울을 달아서 저렁저렁저렁 하고 밟고 다녔어요. 미리 말아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밟히지 말고, 음. 이 식을 하나 무정물 하나도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도 낫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걸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길을 띄워주지, 남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여기서 벌써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기당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드세요.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뚱이

있을 때 알아야지 몸뚱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까.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했습니까. 죽어서도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여기서 그냥, 그림자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외곽외곽하니 한 발짝도 떼놓을 수 없지. 또 강을 건너가려 하니 그 영혼이 자기가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봐 건너가질 못하잖아.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 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불바퀴 속을 넘어야 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죠. 마음이라는 게 타 죽는 게 어딨고 타 죽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립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개미 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양정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질문자4(男): 제가 금방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심장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한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뭐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만 '이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어떤 인연은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걸 의심을 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는지 법을 설명하십시오.

▲스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고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뭐고' 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뭐고? 이게 뭐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뭐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뭐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간 놀의 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것을 칼로 잘라서 죽으면 어떻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탄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 받아가지고 세상이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렇게 보임(保任)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迷)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체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서 쓰이는 게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쳐 못할 일이 있

▶▶ 22면으로 계속

팔공산 은해사 제1198돌 개산대재

www.eunhae-sa.org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호(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설총선생, 민족의 자족, 자존, 자주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선사(一然禪師) 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현 은해사는 종립 승가대학원과 3개의 선원을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는 개산일에는 개산대재 법요식, 보살계, 만등불사 그리고 지장보살 전안식을 봉행하오니 꼭 동참하시어 지혜와 복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년 10월

은해사 수림장(樹林葬) 안내

수림장은 고인의 유골분을 지정된 나무 아래에 봉안하는 가장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본사가 시행함으로써 선진 장례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생을 의미하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효행목이 되어 가족들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는 천년 성지이다.

전화상담 : 054)335-0566 www.surimjang.co.kr

●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2007년 10월 20일 (음 9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차례제 - 부도전

■ 2007년 10월 21일 (음 9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현공 및 사시예불 지장보살 봉안식
오전 11시 개산대재 법요식
오후 1시 30분 보살계 수계식
오후 4시 경기남사당패 공연
오후 7시 만등불사 점등식

전계대화상 圓坡慧淨(원로의원)
三師 교수아사리 無縫性愚(파계사주지)
 갈마아사리 金潭智漢(극락선원회주)

■ 동참금: 보살계 -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접수처: 은해사 (054)335-3318~9, FAX (054)335-0293
평불협 (02)741-9345, 은해사 교구 각 말사

제10교구 본사 팔공산 은해사 주지 중 화 법 타 합장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매월 음력 3일, 18일)
(동대구 → 반야월 → 하양), (포항역 → 영천 → 은해사) 지역으로
버스 운행합니다.